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7월 개관 예정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 활용...여백과 개방감 높여 연출 현존 유일 근대 금융계 건물 상징 살려 대중음악과 인연 전시



목포시가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을 활용한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을 오는 7월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5~6월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에 콘텐츠 설치를 마무리하고, 7월 문을 열어 본격적으로 하게 관객을 맞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을 매입해 원형 회복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 검토와 회의, 현장 조사를 수신했던 끝에 '목포 대중음악

의 전당' 콘텐츠 구성안을 마련했다. 구성안은 건축 원형을 살리는 열린 공간 구성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1층은 전시물 나열을 지양하고, 목포 현존 유일한 근대 금융계 건물로서의 특성, 호남 인사들이 설립한 순수 민족 자본 은행이라는 상징성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백과 개방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출한다. 또 지금껏 목포에 없었던 최신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군더더기를 뺀 공간에서는 기획 전시, 소규모 행사, 회의 등의 진행이 가능하다. 2층 데마는 대중음악으로서 목포와 한국 대중음악의 각별한 인연을 선보인다. 목포는 관련된 대중가요가 110곡 이상으로 '목포의 눈물'로 잘 알려진 이난영, 최초 걸그룹인 김시스터즈 등 K-Trot 발전의 초석을 놓은 별들을 배출한 도시다. 시는 이 같은 자산을 소재 삼아 대중음악이 생겨나고 유행했던 스토리와 콘텐츠를 관람·체험할 수 있으며, 매년 명예 대중음악가를 선정해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관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엔지니어링이 될 안내 플랫폼과 휴게 공간,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센터가 운영돼 시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지원한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영암군에서는 남도에서 체류하면서 여행하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참가자가 남도를 여행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남도 여행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광주 전남 지역 외의 거주자로 영암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행 기간에 숙박비와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며, 참가자는 여행계획, 홍보계획, 기존 SNS 활동 등을 검토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여행작가·블로거·유튜버 등 관광 홍보에 적합한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의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청결운동 캠페인

영광군은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3대 청결운동 홍보를 위해 지난 21일 터미널 시장 일원에서 음식점과 지역주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져 주민들의 식품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과 음식점 3대 청결운동(깨끗한 음식, 깨끗한 환경, 깨끗한 복장)을 홍보하였으며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물(수세미)을 배부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3대 원칙을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학교지구 농경지 침수 해결...배수개선사업

함평군 학교지구가 농경지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에 최종 확정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매년 장마철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학교면 월산리, 사거리, 월호리 일대 농경지(178ha)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 개선사업에 선정됐다. 배수개선사업은 농작물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학교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72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1개소, 용수로 등이 정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 등 사전재해 예방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다 제동지구가 20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돼 내달 기본조사 용역을 착수하게 된다. 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제동지구가 2023년 신규 착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새벽과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하세요"

무안군, 남창천 자전거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

무안군은 남안신도시 경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야간 이용률이 높은 영산강 제방에서 남창천 자전거길 2.5km 구간에 경관개선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남안신도시 내 영산강과 남창천은 자전거길, 산책로,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대표적인 산책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지난해 1차 남안수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영산강 제방에서 남창천 자전거길 1.7km 구간에 ▲LED센서벽등 192개 ▲태양광표지병 404개 ▲볼라드등 61개를 설치해 주민들이 야

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잔여 구간인 남창천 자전거길 0.8km 구간에 ▲LED센서벽등 22개 ▲태양광표지병 159개 ▲볼라드등 62개 ▲교량부 조명 3개소를 설치하는 남창천 자전거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창천과 영산강 산책길을 환하게 밝힐 계획이다. 강성우 산림공원과장은 "지난해 1.7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남창천과 영산강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올해 잔여구간 사업을 잘 마무리해 남창천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이임 회장 공모패 전달·2021년 회비결산 및 2022년 활동 계획 논의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진자)는 21일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신안군청 2층 공연장에서 회원 92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읍·면 여성단체 이임 회장 공모패 전달, 2021년 회비결산 및 2022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대행사에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 취·창업 교실 홍보,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예코백, 앞치마 등 친환경 작품 전시 ▲경력단절여성 경력이

음바우쳐 홍보 ▲조형물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진자 회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발전에 협력하여 더 좋은 신안을 위해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읍면 8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등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쁜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